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화,수,목,금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3. 목사안수

저희 교회 이우선 전도사님이 국제 복음 개혁신학대학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시고
어제 캐나다에 있는 본교에서 합동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4. 축결혼

정일운 형제, 전주은 자매님이 8월 23일(토)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지난 주 (5/25)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555.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5.6.1 (606호)

평일 1:6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윤한진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16:14-18
말씀선포	Sermon	돈을 잘 쓰자는 비유가 아닙니다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6월 8일	6월 15일
유영환	김주연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평안의 노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평안은 영원의 속성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하지 아니한 것 속에는 평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평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욥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 가는 것 같으니라 불을 피우면 불티가 위를 향해 날아가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고생이라는 건 너무나 필연적이에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영원의 속성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것들 속에는 결코 영원의 속성인 평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곧 로고스 그 자체이신 까닭입니다. 이처럼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평안을 누리는 이유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네 그 답을 찾았습니다. 자신 안에 담겨진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교만과 오만함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는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마치 젖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이든 것과 같이 그 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3**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젖을 먹은 아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배가 고프면 자동으로 엄마의 젖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매 순간 그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의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속에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잠든 젖은 아이와 같은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